

#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이수만\*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성경 번역 과정에 필요한 일관성 점검을 소개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성경 역본들에 대한 일관성 점검을 시도하여 각 역본들의 번역의 완성도를 평가해 보고, 나아가 한국 교회에 더 나은 성경을 전해주려면 각 역본들의 일관성 향상이 요청되며 이를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함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 1.1. 성경의 언어적 통일성과 본문상호성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sup>1)</sup> 점검(consistency checks in Bible translation)은 성경 66권 본문 전체의 기본 모습을 번역문에 되살리는 작업이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속역사라는 주제의 통일성(thematic coherence)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성경은 놀라운 언어적 통일성(linguistic cohesion)을 지니고 있다. 그 통일성은 수많은 용어와 구문이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됨으로 실현되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천이 씨줄과 날줄로 온전하게 짜여져 있는 것과 같다. 이같이 성경 원문이 내재적으로 지닌 언어적 문학적 상호 관계를 본문상호성(intertextuality)이라고도 하며 근래에 재부각되고 있고 이를 성경 번역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다.<sup>2)</sup>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일

\* GBT/SIL International 번역 컨설턴트, 선교사.

1) 여기서는 일관성(consistency)을 일치성(concordance)이라 부를 수도 있다.

2) 성경 원문의 본문상호성과 번역에의 적용에 관한 설명은 다음 자료에서 참고할 수 있다. Thomas L. Brodie, Dennis R. MacDonald, and E. Stanley Porter, (eds.), *The Intertextuality of the Epistles: Explorations of Theory and Practice*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Philip Towner, "Intertextuality: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0 (2007), 104-120. 본문상호성은 전통적인 역사-문법적 해석(historico-grammatical interpretation)과 깊이 관련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본문상호성(intertextuality)"을 "상호텍스트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관성은 성경본문의 통일성과 본문상호성을 번역문에 재현하려는 노력이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용어와 구문의 사용에 있어 놀라운 통일성과 아름다운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경 원문의 모습을 전부 그대로 번역문에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언어와 그 문학 양식은 고유한 특질을 갖기 때문이다. 가령, 구약 시가서의 히브리문학적 기교는 어떤 다른 언어로도 그대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 언어의 번역 성경들은 성경 원문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한 방편으로서 본문상호성을 번역문에 재현하려는 일관성 점검은 사실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다. 필립 타우너는 “그것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번역의 도전으로 정의된다. ... 이는 성경 원어 - 히브리어/아람어와 헬라어를 지속적으로 정통하게 숙달할 필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라고 한다.<sup>3)</sup> 이같은 일관성 점검의 관점에서 한글 성경 역본들을 살펴보면 다소간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 1.2. 한글 성경 역본들과 번역의 일관성

지난 120여 년간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한국 교회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좋은 성경 번역본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1년에 완역 출간된 한글 성경은 그 후 개정되어 『개역한글판』(1961)으로 나왔고 이 역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의 공적인 성경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국어 사용에 변화가 있어 왔고 또한 『개역한글판』 성경 자체의 부족한 점도 드러남에 따라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번역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 교회와 학계의 노력으로 한국 교회는 여러 역본들을 갖게 되었다.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인의성경』, 『현대어성경』, 『공동번역』, 『바른성경』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역본들은 아직 『개역한글판』처럼 한국 교회 전체로부터 “교회 성경(Church Bible)”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up>4)</sup> 이는 한글 역본들이 좀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을 뜻하겠고, 동시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가짐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감각에 맞는 고품

3) Ibid., 104, 118.

4) 근년에 다수의 교단이 『개역개정판』을 교회 성경으로 공식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과거 『개역한글판』이 가졌던 “교회 성경”의 지위에 『개역개정판』이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질의 성경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전한 번역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단지 성경 원문에 충실한 정확성, 본문 의미 전달에 있어서의 명확성, 현대적 언어 사용에 따른 자연성이란 번역의 자질을 최대한 높인 역본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는 일관성 점검에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한다. (1) 같은 문맥 속의 같은 단어와 구문은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2) 병행구문에 있어서 다른 점은 같은 점과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3) 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번역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경의 해당 부분이 번역된 다음에 실시되어야 한다.<sup>5)</sup>

일관성 점검에서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은 문맥적 일관성(contextual consistency)이 문자적 일관성(verbal consistency)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sup>6)</sup> 번역에서의 일관성은 단순히 원문의 단어를 하나의 한글 단어로 일대일 대응시켜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번역문은 부자연스럽고 단조로운 문체가 되고 성경 원문의 문학적 탁월성이 사라지게 된다. 일관성 점검은 원문의 용어 및 구문의 형태와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존중하고, 동시에 번역대상 언어의 용어 및 구문의 형태와 문맥에 따른 의미를 존중하면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가령, 성경 히브리어는 용어들이 다의성(polysemy)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shalom(shalom)”은 (1) 평안, 평강, (2) 번영, 성공, (3) 완전함, 온전함, (4) 행복, 건강, (5) 평화, (6) 친절, (7) 구원 등을 의미한다. “shalom”이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른 용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같은 문맥에서는 동일한 용어로 일관성 있게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팀이 다수의 번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보통 소수의 가장 전문적인 번역자들이 맡아서 일관성 점검을 실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점검은 번역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판 준비 직전 1-2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sup>7)</sup> 건축공사에 비유하자면 마무리공사와 같다.

아래에서는 먼저, 일관성 점검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근년에 출판된 여섯 개의 한글 역본에서 일관성 점검이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5) Eugene A. Nid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The Bible Translator* 5:4 (October 1954), 178.

6) Raymond B. Dillard, “Translators, Translations, and the Church”, *Notes on Translation* 60 (June 1976), 12-19, *Translator’s Workplace* 5 (SIL International, 2008).

7) 존 비크맨은 “번역단계의 첫 책들에 있어서는 일치성의 결여가 허용된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최선의 마지막 선택을 할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John Beekman, “Classifying Translation Problems”, *Notes on Translation* 30 (September 1968), 14-20, *Translator’s Workplace* 5 (SIL International, 2008).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로 한다.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그리고 한국 천주교가 주교회의 공인으로 사용하는 『천주교성경』.<sup>8)</sup> 참고로 외국 언어 역본들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본적으로 네 가지 외국어 성경 역본을 든다. 영어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독어 루터성경 개정판(*LUT*), 중국어 화합본(*CUV*), 터키어 성경(*Kutsal Kitap*).<sup>9)</sup>

## 2. 번역 과정 마지막에 하는 일관성 점검 사항들

성경전서 번역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여러 면에서 점검을 한다. 그 점검들 가운데 일관성 점검이 가장 중요한데 번역문의 최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관성 점검 항목들은 초기 번역 과정에서도 유용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출판 전에 번역 컨설턴트(translation consultant)가 확인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 2.1. 신구약에 걸친 이름, 주요 용어 및 구문의 일관성

#### 2.1.1.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names and titles of God)

하나님, 여호와(*yhwh*), 전능자(*shadday*), 주(*adonay*), 지극히 높으신 자(*elyon*) 등. 특히 구약의 “*yhwh*”를 “여호와”나 “야훼” 또는 “주”로 번역할지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일관성이 요구된다(아래 3.1. 예 1 참조).

#### 2.1.2. 고유 명사들(proper nouns)

지명과 인명. 어떤 이름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의 구약시대 이름으로 “긴네롯”(수 11:2)과 “긴네렛”(민 34:11)이 나오는데 한 형태로 통일할지 두 형태로 사용할 지,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갈릴

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대한성서공회), 『새번역성경』(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대한성서공회), 『쉬운성경』(Agape Easy Bible, 2004, 아가페출판사), 『우리말성경』(Duranno Korean Bible, 2005, 두란노서원), 『바른성경』(Korean Truthful Version, 2008, 한국성경공회), 『천주교성경』(CCK Bible, 200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 영어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1952,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독어 루터성경 개정판 (LUT, 1984, Deutsche Bibelgesellschaft), 중국어 화합본(和合本 CUV, 1919, Hong Kong Bible Society), 터키어 Kutsal Kitap (2002, Turkish Bible Society).

리 바다”로 부르지, 또는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로 부르지 번역팀은 결정해야 한다(아래 3.1. 예 2 참조).

### 2.1.3. 주요 용어들(key terms)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전하는 신학적 용어들을 주요 용어라 부르며, 이러한 용어들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일관된 사용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구원, 구속, 성령, 천사, 하나님의 아들, 인자, 나라/왕국, 제사장, 선지자, 제단, 안식일, 세례 등.

### 2.1.4. 기술적인 용어들(technical terms)

절기 이름, 제사와 제물 이름 등을 기술적인 용어라 부르며 일관된 사용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유월절, 초막절,<sup>10)</sup> 번제, 화목제, 성막, (하나님의/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 증거궤, 언약궤 등. 도량형 및 돈의 단위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 2.1.5. 실물, 동식물 이름들(realia, fauna and flora)

이같은 용어들도 신구약에 걸쳐 동일한 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전의 기물, 무기, 여러 농기구, 동식물 이름.<sup>11)</sup> 성막과 성전에 불을 밝히던 “등잔대(히 *menorah*, 헬 *luchnia*)”를 예로 들 수 있다. (아래 3.2. 참조).

### 2.1.6. 주요 구문들(key phrases)

일관성 있게 번역되어야 할 여러 구문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ki le'olam hasdo*)”.<sup>12)</sup> (아래 3.3. 참조).

## 2.2. 인용구문과 병행구문들

### 2.2.1. 인용구문들(quotations)

주로 구약의 주요 구문이나 구절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인용된다. 특히 신

10) 하나의 예로 “초막절”을 보면, 『쉬운성경』은 “초막절”(신 16:16)과 “장막절”(겔 45:25)을 혼용하고 있고, 같은 구절에서 『우리말성경』도 혼용하고 있다. 『새번역성경』에는 “초막절”만 사용되지만 그 이전 역본인 『표준새번역』(1993)은 “초막절”(신 16:16)과 “장막절”(요 7:2)을 혼용하고 있다. 『개역개정판』, 『바른성경』, 『천주교성경』은 “초막절”만 사용하고 있다.

11) 폴 로렌스는 나무 이름 *bērōš* (『개역개정판』 “жат나무” 왕상 5:8) 번역의 불일치성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P. J. N. Lawrence, “*Bērōš*—A Study in Translational Inconsistency”, *The Bible Translator* 55:1 (January 2004), 102-107.

12) 이 구문은 구약에서 37회 사용됨(예, 대하 16:34; 시 136:1).

약 안의 구약 인용문 번역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시편 110:4 구절이 히브리서 5:6과 7:17에서 인용되고, 잠언 3:34는 야고보서 4:6과 베드로전서 5:5에 인용된다. (아래 3.4. 참조).

### 2.2.2. 병행구문들(parallel passages)

크고 작은 수많은 병행구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삼상 31장 // 대상 10장; 삼하 22장 // 시 18편; 렘 10:12-17 // 렘 51:15-19.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본문의 병행적인 연관성 특히 공관복음의 병행구문이 여기에 속한다. (아래 3.5. 참조).

## 2.3. 편집 양식에 따른 일관성

### 2.3.1. 각주(footnotes)

신구약 전체에 걸쳐 각주의 양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번역자가 책들을 나누어서 번역할 경우 책에 따라 각주의 수나 성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 2.3.2. 단락 제목, 관주 및 병행구문 표시(section headings, cross-references and referencing parallel passages)

성경책의 편집 양식에 따라 이같은 사항들을 넣기도 한다. 가령, 병행구문에 대한 단락 제목은 같아야 한다.

### 2.3.3. 보조 자료들(supplementary materials)

근년에 간행된 역본들은 대부분 책 끝에 지도를 넣고 있다. 때로는 간단한 용어사전(glossary), 도량형표 등 보조 자료를 넣기도 한다. 그 자료 안의 용어들과 성경 본문의 용어들이 일치해야 한다.

## 3. 주요 일관성 점검 항목들과 번역 실례들

다음의 네 항목을 들고 그에 대한 번역의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름들(names), (2) 주요 용어들과 실물 용어들(key terms and realia), (3) 주요 구문들(key phrases), (4) 인용문 및 병행구문들(quotations and parallel passages).

### 3.1. 이름들(names)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의 여러 칭호에서부터 수많은 인명 및 지명들이 있다. 동일한 대상은 동일한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고, 같은 대상이더라도 이름이 바뀐 경우는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나 의미가 있으므로 첫 이름과 바뀐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르다.

하나님의 이름 또는 칭호로 “하나님”(elohim/el/eloah), “여호와”(yhwh), “전능자”(shadday), “지극히 높으신 자”(elyon), “주”(adonay/adon)를 들 수 있다. 이같은 이름들은 항상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하지만 엄정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 이름 예 1: 하나님의 칭호 “전능자”(히브리어 שַׁדַּי shadday)

이 칭호는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 보통명사인 “하나님”(el)과 함께 사용되었다. (아래 각 역본에서 사용된 용어에 형태별로 번호를 붙였다.)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창 17:1	전능한 (하나님)①	전능한 (하나님)①	전능한 (하나님)①
출 6:3	전능의 (하나님)②	전능한 (하나님)①	전능한 (하나님)①
룻 1:20	전능자③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하나님②
욥 6:4	전능자③	전능하신 분②	전능자③
시 68:14	전능하신 이④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하나님②
겔 1:24	전능자③	전능하신 분②	전능자③
욘 1:15	전능자③	전능하신 분②	전능자③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
창 17:1	전능한 (하나님)①	전능한 (하나님)①	전능한 (하느님)①
출 6:3	전능한 (하나님)①	전능의 (하나님)①	전능한 (하느님)①
룻 1:20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분②
욥 6:4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분②
시 68:14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분②	전능하신 분②
겔 1:24	‘전능하신 분’②	전능자③	전능하신 분②
욘 1:15	전능자③	전능자③	전능하신 분②

한글 역본들을 보면, 『개역개정판』은 4형태로 (“전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 “전능하신 이”) 번역했고,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바

른성경』은 3형태로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번역했다. 『새번역성경』은 2형태로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 좀더 일관된 번역을 했다. 『천주교성경』도 마찬가지로 2형태로 번역을 했다. 한글 역본들은 모두 *el shadday*(창 17:1; 출 6:3)에서 *shadday*를 수식어로 이해하여 “전능한”으로 번역했다. 만일 이 구문에서도 *shadday*를 칭호로 이해한다면 창세기 17:1과 출애굽기 6:3은 “전능자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약 전체에서 볼 때 *shadday*는 명사 곧 칭호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창 17:1	(God) Almighty	der allmächtige (Gott)	全能的 (神)	Her Şeye Gücü Yeten (Tanrı)
출 6:3	(God) Almighty	der allmächtige (Gott)	全能的 (神)	Her Şeye Gücü Yeten (Tanrı)
룻 1:20	the Almighty	der Allmächtige	全能者	Her Şeye Gücü Yeten
욥 6:4	the Almighty	der Allmächtige	全能者	Her Şeye Gücü Yeten Tanrı
시 68:14	the Almighty	der Allmächtige	全能者	Her Şeye Gücü Yeten
겔 1:24	the Almighty	der Allmächtige	全能者	Her Şeye Gücü Yeten
욥 1:15	the Almighty	der Allmächtige	全能者	Her Şeye Gücü Yeten

위 표에서 볼 때, 네 외국어 성경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영어(RSV)는 *shadday*를 칭호로 이해하여 일관되게 대문자 Almighty로 번역했고, 독어와 중국어는 *el shadday*(창 17:1; 출 6:3)에서 *shadday*를 수식어(독어: allmächtige, 중국어: 全能的)로 이해했으나, *shadday*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칭호(독어: der Allmächtige, 중국어: 全能者)로 번역했다. 터키어는 Her Şeye Gücü Yeten ‘모든 일에 능력이 충분하신 분’으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다. 단, 욥기 6:4에서 Tanrı ‘하나님’을 추가하고 있다.

### 이름 예 2: 지명 “갈릴리 바다”(ho thalassa tes Galilaias)

지명의 예로 “갈릴리 바다”를 들어 보자.



	『개역 개정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천주교 성경』
막 7:31	갈릴리 호수①	갈릴리 바다①	갈릴리 호수①	갈릴리 호수①	갈릴리 바다①	갈릴래아 호수①
요 6:1	갈릴리 바다②	갈릴리 바다①	갈릴리 호수①	갈릴리 바다②	갈릴리 바다①	갈릴래아 호수①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막 7:31	the Sea of Galilee	das Galiläische Meer	加利利海	Celile Gölü
요 6:1	the Sea of Galilee	das Galiläische Meer	加利利海	Celile Gölü

헬라어 *thalassa*를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는 문제는 논의로 하고 단지 번역의 일관성만 살펴보기로 한다. 네 개의 외국어 역본은 모두 일관성이 있고, 한글 성경의 경우에도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은 일관성이 있다. 『개역개정판』과 『우리말성경』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번역하였다. 헬라어 원문에 동일한 지명을 마가복음에서는 “호수”로,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에 더하여, 동일한 “갈릴리 바다”가 구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yam-kinneret* (민 34:11) 또는 *yam-kinerot* (수 12:3). 여기서 지명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유의점을 보게 된다. (1) 한 지역에 대해 신구약에서 두 가지 지명이 사용된 경우: 구약의 “긴네렛 바다”와 신약의 “갈릴리 바다”. (2) 구약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지명이 사용된 경우: “긴네렛”과 “긴네롯”. 이 경우 구약 내에서는 한 이름으로 통일하여 번역할 수도 있다. 각 역본을 살펴보자.

	『개역 개정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천주교 성경』
민 34:11	긴네렛 (해)①	긴네렛 바다①	긴네렛 바다①	긴네렛 호수①	긴네렛 바다①	긴네렛 호수①
수 12:3	긴네롯 바다②	긴네롯 바다②	갈릴리 호수②	긴네롯 바다②	긴네롯 바다②	긴네렛 바다②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바른성경』은 “긴네렛”, “긴네롯”으로 원문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바다”로(“해”를 포함해서) 번역했다. 『쉬운성경』은 “긴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로 상당히 혼란스런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 『천주교성경』도 “호수”와 “바다”로 일관성이 없다. 『천주교성경』은 민수기(34:11)에서는 “호수”, 여호수아서(12:3; 13:27)에서는 “바다”라 부르고 있는데 일관성 점검이 완벽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쉬운성경』이 “바다”라 부를 때는 『우리말성경』이 “호수”라 부르고, 또 “호수”라 부를 때는 “바다”라 부른다. 전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번역할 때 여러 역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민 34:11	The sea of Chinnereth	See Kinneret	基尼烈湖	Kinneret Gölü
수 12:3	The Sea of Chinneroth	See Kinneret	基尼烈海	Kinneret Gölü

외국어 역본들을 보면, 독어와 터키어는 하나의 용어로 일관된 번역을 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 Chinnereth과 Chinneroth의 차이는 원문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바다”를 sea와 Sea로 문자를 다르게 쓰고 있다. 중국어는 “호수(湖)”와 “바다(海)”로 다르게 번역하는 혼란을 보인다.

여기서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우선 신구약 모든 곳에서 “바다”로 부를지 “호수”로 부를지 결정한다. (참고로, 위 외국어 역본들에서 영어와 독어는 “바다”로, 중국어는 “호수”와 “바다”로, 터키어는 “호수”로 부르고 있다.) 다음으로 그 이름은 신약에서는 “갈릴리”, 구약에서는 “킨네렛”으로 하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 구약에서는 “킨네렛 바다”나 “킨네렛 호수”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한편, 『쉬운성경』에서처럼 구약에서도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면 시대착오적인 번역이 된다. 구약시대에는 “갈릴리”가 아니라 “킨네렛”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 3.2. 주요 용어들과 실물 용어들(key terms and realia)

성경에서 일관성이 필요한 용어들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 주요 용어들(key terms)과 비교적 단순한 실물(realia) 용어들을 포함한다.

주요 용어로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용어들(가령, 하나님, 성령, 천사, 제사장, 선지자, 제자, 사도, 성막, 성령, 회당, 복음)과 하나 이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예를 들면, 율법, 명령, 규례, 증거 등 법률 용어나 지혜, 지식, 명철 등 지혜 용어)이 있다.

실물 용어로는 건축 관련 용어들(성막과 성전의 부분과 기물들), 악기

명칭들, 동식물 이름들, 직업명과 무기 및 산업 도구 이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같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어느 역본에서나 비교적 일관성 있게 번역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글 역본들은 좀 더 일관되게 다듬어질 필요를 보인다.

**실물용어 예 1: “등잔대”(히브리어 *מְנוּרָה menorah*, 헬라어 *λυχνία luchnia*)  
성막과 성전의 기물 가운데 하나인 “등잔대”를 예로 들어보자.**

	『개역 개정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천주교 성경』
출 25:31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왕상 7:49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등잔대
렘 52:19	촛대	등잔대	등잔대	촛대	등잔대	등잔대
히 9:2	등잔대	촛대	촛대	촛대	촛대	등잔대
계 1:12	촛대	촛대	촛대	촛대	촛대	등잔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성소에서 불을 밝히던 도구인 순금 “등잔대”가 하나 이상의 명칭으로 불려야 할 이유는 없다. 등잔대에는 감람유로 불을 밝히는 일곱 “등잔(נֵר ner)”이 얹혀져 있었으므로 “촛대”라 불려질 이유도 없다. 구약의 히브리어 *מְנוּרָה(menorah)*는 헬라어로 구약 『칠십인역』과 신약 원문에서 동일하게 *λυχνία(luchnia)*로 불렸다. 한글 역본들은 『천주교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족한 면을 보인다. 열왕기상 7:49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등잔대”가 예레미야 52:19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노략될 때 “촛대”로 불려야 할 이유는 없다. 동일한 성물이 신약시대에도 사용되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다수의 역본들이 “촛대”로 번역하는가? (계 1:12, 13, 20; 2:1, 5; 11:4) 앞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출 25:31	lampstand	Leuchter	燈臺	kandillik
왕상 7:49	lampstand	Leuchter	燈臺	kandillik
렘 52:19	lampstand	Leuchter	燈臺	kandillik
히 9:2	lampstand	Leuchter	燈臺	kandillik
계 1:12	lampstand	Leuchter	燈臺	kandillik

위 네 외국어 역본은 모두 일관된 번역을 하고 있다

**실물 용어 예 2: “휘장”**

『개역개정판』에서 “휘장”으로 번역된 성막 경내의 실물들은 히브리어로는 네 가지 용어로 나오며 실제로는 다섯 가지 물품을 지칭한다.

- (1) יְרֵי־אֹהֶל yeri‘ah 성막을 덮는 재료: (i)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길다란 성막덮개 천(출 26:1), (ii) 염소털로 짠 길다란 성막덮개 직물(출 26:7).
- (2) פָּרוֹכֶת parokhet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짠 천(출 26:31).
- (3) מַסַּח masakh 성막 출입구를 가리며 문 기능을 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짠 천(출 26:37).
- (4) קֵלָע qela 성막 뜰과 외부를 분리하는 울타리 기능을 하는 세마포(출 27:9).

이 가운데 특히 (2) פָּרוֹכֶת parokhet은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찢어진 성소의 “휘장”(τὸ καταπέτασμα. 마 27:51; 막 15:38; 눅 23:45). 히브리서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가르친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20).

위에 제시된 네 개의 용어, 다섯 가지 실물을 역문들은 충분히 구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sup>13)</sup> 역문들을 살펴보자.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
Yeri‘ah 여러 실로 짠 성막덮개 출 26:1	휘장	(천)폭	(천)폭	휘장	(천)폭	(천)폭
Yeri‘ah 염소털로 짠 성막덮개 출 26:7	휘장	(천)폭	장막	휘장	(천)폭	(천막의) 폭
Parochet 성소와 지성소 분리 천 출 26:31	휘장	휘장	휘장	휘장	휘장	휘장
마 27:51	휘장	휘장	휘장	휘장	휘장	휘장

13) 이 실물 용어들을 구별지어 번역하는 것은 어느 언어에나 쉽지 않은 것 같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경우도 פָּרוֹכֶת parokhet(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천, 출 26:31)과 מַסַּח masakh(성막 출입구를 가리는 문 기능의 천, 출 26:37)를 to katapetasma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masakh를 출애굽기 26:36에서는 epispastron으로 번역하였다.

히 10:20	휘장	휘장	휘장	휘장	휘장	휘장
<i>Masakh</i> 성막 출입구 가리는 천 출 26:37	휘장	막	휘장 (36절에는 ‘막’)	휘장	막	막
<i>Qela</i> 성막뜰 올타리 출 27:9	휘장	휘장 (으로 올타리)	휘장(을 둘러서 올타리)	성막휘장	포장	휘장

『개역개정판』은 모든 것을 “휘장”으로 부름으로 각기 다른 용어의 실물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으며, 『우리말성경』도 비슷하다. 『새번역성경』과 『천주교성경』은 용어들을 구별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쉬운성경』도 비슷한 노력을 보이지만 *masakh*를 출애굽기 26:36에는 “막”이라 하고 출애굽기 26:37에는 “휘장”이라 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바른성경』은 실물 용어들을 구별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 용어 번역에 있어 여러 역본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외국어 번역본들을 보자.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i>Yeri'ah</i> 여러 실로 짠 성막덮개 출 26:1	curtain	Teppich	幔子	perde
<i>Yeri'ah</i> 염소털로 짠 성막덮개 출 26:7	curtain	Teppich	幔子	perde
<i>Parochet</i> 성소와 지성소 분리 천 출 26:31	veil	Vorhang	幔子	perde
마 27:51	curtain	Vorhang	幔子	perde
히 10:20	curtain	Vorhang	幔子	perde
<i>Masakh</i> 성막 출입구 가리는 천 출 26:37	screen	Decke	帘子	perde
<i>Qela</i> 성막뜰 올타리 출 27:9	hanging	Behang	帷子	perde

독어 성경이 가장 정확한 구분을 하고 있고, 터키어 성경은 모두 perde ‘휘장, 커튼’이라 부른다. 영어 RSV는 약간 중복된 번역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성소 휘장을 veil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curtain이라 하는 실수를 범했다. RSV(1952)의 개정판인 NRSV(1989)에서는 모두 curtain으로 수정했다. 중국

어 성경도 부족하지만 실물 용어들을 구분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 3.3. 주요 구문들(key/major phrases)

신구약 전체에는 번역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수많은 구문들이 있다.

#### 주요구문 예 1: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일”(hayyashar be'ene yhwh) 구문

이 구문은 구약에 23회<sup>14)</sup> 사용되었다. 『개역개정판』을 예로 들어보자. 신명기 12:25에는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 했으나 그 3절 아래인 12:28에는 “여호와와 목전에 선”이라 번역되어 있다. 이 구문을 꼭 일관되게 번역해야 하는지 반문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 구문이 지닌 깊은 의미와 용례를 볼 때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역사서 저자들은 신명기 말씀에 정통했고 신명기의 구문들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왕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역사를 기록했다. 사용된 23회 가운데 몇몇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자. 이 가운데 열왕기하 14:3과 역대하 25:2는 병행구문이다.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신 12:25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①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①
신 2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②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②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②
왕상 15:5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③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③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①
왕하 14:3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④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④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①
=대하 25:2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④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①
대하 34:2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③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②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③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
신 12:25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①

14) 신 12:25, 28; 13:19; 21:9; 왕상 15:5, 11; 22:43; 왕하 12:3; 14:3; 15:3, 34; 16:2; 18:3; 22:2; 대하 14:1; 20:32; 24:2; 25:2; 26:4; 27:2; 28:1; 29:2; 34:2.

신 2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②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게②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①
왕상 15:5	여호와 눈앞에서 정직하게③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③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①
왕하 14:3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④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④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①
=대하 25:2	여호와 눈앞에서 올바르게⑤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③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①
대하 34:2	여호와와의 눈앞에 올바르게⑥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⑤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①

위의 표들을 보면, 『우리말성경』은 6가지,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은 5가지, 『새번역성경』은 4가지, 『쉬운성경』은 3가지 번역 구문을 사용했다.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병행구문인 열왕기하 14:3과 역대하 25:2도 『새번역성경』과 『쉬운성경』만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이 구문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be'ene yhwh*)” 구문과 “의로운 일(*hayyashar*)” 구문을 따로 구별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다소 혼란스런 번역들이다. 반면에 『천주교성경』은 하나로 일관되게 번역하였다.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신 12:25	what i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was recht ist vor dem HERRN	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RAB'bin gözünde doğru olan
신 21:9	what i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wie es recht ist vor den Augen des HERRN	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RAB'bin gözünde doğru olan
왕상 15:5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was dem HERRN wohlgefiel	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RAB'bin gözünde doğru olan
왕하 14:3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was dem HERRN wohlgefiel	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RAB'bin gözünde doğru olan
=대하 25:2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was dem HERRN wohlgefiel	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RAB'bin gözünde doğru olan
대하 34:2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was dem HERRN wohlgefiel	耶和华眼中看为正的事	RAB'bin gözünde doğru olan

외국어 성경들의 경우, 영어, 중국어, 터키어 성경은 동일한 번역 구문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영어 RSV는 문맥에 따라 시제를 다르게 사용했는데(*what is/was right*) 이는 바른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독어는 3가지 번역문을 사용하여 약간의 혼란상을 보인다.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동일한 구문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 3.4. 인용문들(quotations)

성경 66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책을 이룬다. 용어나 개념들이 그러하고, 또한 구약과 신약은 인용문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앞선 책들에 있는 구절이나 구문이 나중의 책들에 인용되며 구약의 구문이 구약 안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인용되기도 한다. 신약의 내용들이 신약 안에서 서로 인용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의 교량역할로서 『칠십인역』(LXX) 헬라어 구약의 역할도 인정되어야 한다. 인용 구문은 원래의 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되고 인용구문의 형태와 그 인용방식을 존중하면서 번역되어야 한다. 즉 같은 구문은 동일하게 번역하고 형태가 달라진 인용문은 그 달라진 형태를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

또한 여러 책의 장절들은 서로 병행되는 구문들이다. 구약은 오경의 일부 내용이 병행구문이며, 사무엘상에서 역대하까지의 기록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18편, 시편과 선지서의 일부가 서로 병행구문들이다. 구약의 약 4분의 1이 병행구문이며, 신약은 복음서 전체가 기본적으로 병행구문인데 이는 신약의 44 퍼센트를 점한다.

인용문들과 병행구문들에 대한 일관성 점검은 상당 기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완성도가 높은 결과를 얻는다.

#### 인용문 예 1: 시편 110:4 = 히브리서 5:6 = 히브리서 7:17 구문

먼저 원문을 살펴보자.

	구약 히브리어 원문 (BHS <sup>15</sup> )	구약 헬라어 칠십인역 (LXX <sup>16</sup> )	신약 헬라어 원문 (GNT <sup>17</sup> )
시 110:4	אֲתָהּ כֹהֵן לְעוֹלָם עַל־דָּבָרָהּ מִלְכֵי־צָדֶק	σὺ εἶ ἱερεὺ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κατὰ τὴν τάξιν Μελχισεδεκ	
히 5:6			Σὺ ἱερεὺ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κατὰ τὴν τάξιν



			Μελχισέδεκ
히 7:17			Σὺ ἱερεὺ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κατὰ τὴν τάξιν Μελχισέδεκ

위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어 구문이 의미상 동일함을 볼 수 있다. 헬라어 구문은 『칠십인역』이건 신약 본문이건 히브리어 구문의 직역이다. 『개역개정판』 시편 110:4에서 “서열”로 번역된 히브리어 מְרַאֲתִי(*divrati*)의 의미와 그 번역어인 헬라어 τάξις(*taksis*)의 의미를 각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서열, 계통, 반차, 방식, 이유” 등 약간 다른 번역이 될 수 있다. 아래 독어 번역에서 시편의 구문(*der Weise*)과 히브리서의 구문(*der Ordnung*)이 다른 것은 그러한 의미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구문들은 동일하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 신약 헬라어 본문에는 칠십인역 구문에 있는 εἶ가 빠져 있다. εἶ는 “(당신은) ...입니다”의 뜻을 가진 헬라어 계사인테, 신약의 인용문은 계사가 없는 구약 히브리어 원문을 완전히 직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구문은 동일하게 번역되는 것이 기본이다.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시 110:4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①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①
히 5:6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②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②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②
히 7:17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②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③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③

15) Kurt Elliger, et al.,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0).

16) Alfred Rahlfs,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1979).

17) Kurt Aland, et al., ed., *The Greek New Testament* 4th rev. ed.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93).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
시 110:4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①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①
히 5:6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②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①
히 7:17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②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②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①

위에서 다섯 개신교 역본들은 세 구문을 일관되게 번역하지 못했고, 『천주교성경』만 일관되게 번역했다. 『우리말성경』은 시편과 히브리서 5:6을 동일하게 번역했으나 히브리서 7:17은 다르게 해서 아쉬움을 남긴다. 다른 네 역본은 구약과 신약의 번역을 다르게 했다. 『개역개정판』, 『쉬운성경』, 『바른성경』은 히브리서 두 구문을 일관되게 번역했다. 『새번역성경』은 3 가지 형태로 번역했는데 아래 독일어 성경처럼 히브리어 *divrati*와 헬라어 *taksis*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여섯 역본 외에 다른 세 한글 역본을 살펴보았으나 이 세 구문을 모두 일관되게 번역한 역본은 하나도 없었다.<sup>18)</sup>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시 110:4	You are a priest for 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Du bist ein Priester ewiglich nach der Weise Melchisedeks	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永远为祭司	Melkisedek düzeni uyarınca Sonsuza dek kâhinsin sen!
히 5:6	Thou art a priest for 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Du bist ein Priester in Ewigkeit nach der Ordnung Melchisedeks.	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永远为祭司	Melkisedek düzeni uyarınca Sen sonsuza dek kâhinsin
히 7:17	Thou art a priest for 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Du bist ein Priester in Ewigkeit nach der Ordnung Melchisedeks	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永远为祭司	Melkisedek düzeni uyarınca Sen sonsuza dek kâhinsin

18)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 세 역본들이나 그 외의 한글 역본들이 이 글에서 점검의 대상이 된 여섯 역본(『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보다 일관성이나 번역의 완성도가 높은 역본이라 할 근거는 없다.

위에서 중국어 성경은 세 구문을 동일하게 번역했다. 터키어는 히브리서 두 구문은 동일하게 번역했으나 시편 구문은 약간 다르게 했다. 곧, sen(너)을 문장 끝에 두어 강조하면서 시적 감각을 살리려 했다. 독어는 히브리어 두 구문을 같게 했고 구약은 약간 다르게 했다. 영어(RSV)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일한 뜻의 구문이지만 시편에서는 “You are”를, 히브리서에서는 “Thou art”를 사용했다. RSV 번역자들이 시편의 문체는 현대화한 반면 히브리서의 시편 인용문은 미처 현대화하지 못하고 RSV의 대본인 King James Version(KJV, 1611)과 Revised Version(RV, 1885)의 번역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요구되는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NRSV는 세 구문을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You are a priest forever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인용문 예 2: 창 4:26 (12:8; 13:4; 21:33; 26:25) ≈ 율 2:32 = 행 2:21 = 롬 10:13 구문**

이번에는 약간 복합적인 인용문이다. 창세기 4:26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에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다’(הָוָה בְּשֵׁם יְהוָה *qro beshem yhwh*) 구문에 대한 일관성이 문제가 된다. 이 구문은 구약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다(창 12:8; 13:4; 21:33; 26:25; 출 33:19; 34:5; 왕상 18:24; 왕하 5:11; 시 116:13, 17; 율 2:32; 습 3:9 등). 특히 요엘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에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구절은 다시 신약 사도행전 2:21과 로마서 10:13에서 인용된다. 구약의 “여호와(*yhwh*)” 칭호가 신약에서 “주/주님(*kurios*)”으로 번역되는 점을 감안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호와(/주)의 이름을 부르다”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의 신앙행위, 예배행위를 표현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이며 이는 창세기 4장 이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전체에 걸쳐 있어 왔으며 오늘도 동일하다. 이로써 창세기 4:26; 요엘 2:32; 사도행전 2:21; 로마서 10:13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름”과 믿음과 구원의 원리를 계시한다. 이 구문들의 해석과 번역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바르다. 먼저 원문을 보자.

창 4:26 הָוָה בְּשֵׁם יְהוָה אֵז הוּחַל לִקְרֹא *az huchal liqro beshem yhwh*

율 2:32 BHS (3:5)	כָּל אֲשֶׁר-יְקַרֵּא בְשֵׁם יְהוָה יִמְלֵט
율 2:32 LXX	πάς ὃ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αι

행 2:21 GNT	πάς ὃ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αι.
롬 10:13 GNT	Πᾶς γὰρ ὃ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αι.

창세기 4:26의 히브리어 *qro beshem yhwh* 구문은 요엘 2:32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요엘 2:32의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칠십인역』은 엄밀하게 같은 내용이고, 사도행전 2:21은 요엘 2:32의 『칠십인역』 구문이 그대로 인용되었고 로마서 10:13도 문맥상 *γαρ*가 포함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요엘 2:32의 『칠십인역』 구문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따라서 창세기-요엘-사도행전-로마서에서 진리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었다.

한글 번역문들을 점검해보자.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창 4:26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요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행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른성경』	『우리말성경』	『천주교성경』
창 4:26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요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행 2:21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요엘서와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구원을 얻(다)”(을)와 “구원을 받(다)”(행, 롬)에서 약간 다르지만 비교적 일관된다. 그러나 창세기 4:26 번역문은 완성도가 미흡하다. 『바른성경』은 전반적으로 “여호와와 의(/주의) 이름을 부르(다)”를 일관되게 했으나 세부적으로 “사람은”/“자는”, “얻을”/“받을” 등에서 일관성과 번역완성도가 약간 부족하고, 『우리말성경』도 비슷한 수준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보인다. 『새번역성경』과 『쉬운성경』은 창세기 4:26에서 “예배하기/예배를 드리기” 표현을 첨가하여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요엘서, 사도행전, 로마서와는 연관성을 다소 잃어버리게 되었다.<sup>19)</sup> 『새번역성경』은 요엘 2:32에 “구원을 호소하는” 구문을 첨가해서 사도행전 2:21과 로마서 10:13과의 인용관계가 흐려지게 되었다. 『천주교성경』은 일관성과 완성도가 높다. 이 구문의 일관성에 있어서 『바른성경』은 약간 아쉽고, 『쉬운성경』은 비교적 좀 더 아쉽고, 『새번역성경』은 좀 더 많이 아쉽다 하겠다.

“여호와와 의/주의 이름을 부르(다)”는 표현이 “참된 예배를 드리다”란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같은 신앙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 방안으로 창세기 4:26을 요엘서, 사도행전, 로마서와 상통하는 문자적 번역을 하고, 필요하다면 “여호와와 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함”이란 설명을 각주에 넣을 수 있겠다.

외국어 역본들을 보자.

19) 『새번역성경』과 『쉬운성경』이 창세기 4:26에 “예배하기 / 예배를 드리기”를 첨가하는 것은 일부 외국어 역본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두 한글 역본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4:26 구문과 요엘 2:32, 사도행전 2:21, 로마서 10:13 구문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흐려지는 것을 본다. 가령, 영문 NLT(New Living Translation)와 NET(New English Translation) 성경을 보자.

	NLT	NET
창 4:26	people first began to <u>worship</u> the LORD <u>by name</u>	people began to <u>worship</u> the LORD
을 2:32	everyone who <u>calls on the name</u> of the LORD will be saved	everyone who <u>calls on the name</u> of the LORD will be delivered
행 2:21	everyone who <u>calls on the name</u> of the LORD will be saved	everyone who <u>calls on the name</u> of the Lord will be saved
롬 10:13	Everyone who <u>calls on the name</u> of the LORD will be saved	everyone who <u>calls on the name</u> of the Lord will be saved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창 4:26	men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fing man an, den Namen des HERRN anzurufen	人才求告耶和华的名	insanlar RAB'bi adıyla çağırmaya başladı
을 2:32	all wh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delivered	wer des HERRN Namen anrufen wird, der soll errettet werden	凡求告耶和华名的就必得救	RAB'bi adıyla çağırان herkes kurtulacak
행 2:21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wer den Namen des Herrn anrufen wird, der soll gerettet werden	凡求告主名的, 就必得救	Rab'bi adıyla çağırان herkes kurtulacak
롬 10:13	every one who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wer den Namen des Herrn anrufen wird, soll gerettet werden	凡求告主名的就必得救	Rab'bi adıyla çağırان herkes kurtulacak

영어 RSV는 상당히 부족하게 보이고, 독어, 중국어, 터키어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어 성경은 중국어 문법을 고려할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터키어 성경이 가장 온전한 일관성을 보인다.

### 3.5. 병행구문들(parallel passages)

병행구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간단한 구문이 두 곳 또는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거나, 한 장 또는 그 이상의 긴 단락이 두 곳 이상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구문이 다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의 구문이 사용되기도 한다. 병행구문들은 같은 책 안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책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병행구문들에 대한 일관성 점검은 용어나 인용문에 대한 일관성 점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높은 완성도를 얻는다.

#### 병행구문 예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구문

동일한 책에서 사용된 간단한 병행구문의 예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구문을 든다. 시편 98:4 = 시편 100:1 *hari' u layhwh kol-ha'arets*.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시 98: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①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①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①
시 100: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②	온 땅이여, 여호와께 환호성을 울려라②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②

	『우리말성경』	『바른성경』	『천주교성경』
시 98:4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①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치라①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①
시 100:1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①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치라①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②

이 병행구문에서 『우리말성경』과 『바른성경』은 온전하게 일관된 번역을 했고, 『천주교성경』도 “온 세상아”의 위치를 다르게 놓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구문을 동일하게 번역했다. 『개역개정판』, 『새번역성경』, 『쉬운성경』에서는 원문의 동일함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문이어서 문맥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병행구문을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 RSV	독어 LUT	중국어 CUV	터키어 Kutsal Kitap
시 98:4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Jauchzet dem HERRN, alle Welt,	全地都要向耶 和华欢乐；	Sevinç çıǵlıkları yükseltin RAB’be, ey yeryüzündekiler!
시 100:1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lands!	Jauchzet dem HERRN, alle Welt!	普天下当向耶 和华欢呼！	Ey bütün dünya, RAB’be sevinç çıǵlıkları yükseltin!

독어 성경은 두 구문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번역했다. 영어와 터키어 성경은 약간 다르게 했다. 영어 RSV와 터키어는 히브리어 원문 *ha'arets*에 대한 번역을 두 가지로 했다. RSV는 the earth와 the lands, 터키어는 yeryüzündekiler(땅위에 있는 자들)과 dünya(세계). NRSV는 이를 수정하여 두 구절에서 모두 the earth로 번역했다. 중국어에서는 원문의 동일함을 느끼기 어렵다.

**병행구문 예 2: 예레미야 10:12-16 // 예레미야 51:15-18**

동일한 책에서 사용된 다소 긴 단락의 병행구문의 예로 예레미야 10:12-16 = 예레미야 51:15-18을 들어보자(각 절은 병행구문이다: 12//15, 13//16, 14//17, 15//18).

먼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보자.

렘 10:12-15 (BHS)	렘 51:15-18 (BHS)
12 עֲשֵׂה אֲרֶזְךָ בְּכַחוֹ מְכִין תִּבְלַח בְּחִכְמָתוֹ וּבְחַבְבוֹנָתוֹ נְטָה שָׁמַיִם	15 עֲשֵׂה אֲרֶזְךָ בְּכַחוֹ מְכִין תִּבְלַח בְּחִכְמָתוֹ וּבְחַבְבוֹנָתוֹ נְטָה שָׁמַיִם
13 לְקוֹל תִּתּוֹ הַמּוֹן מִיָּם בְּשָׁמַיִם וַיַּעֲלֶה נְשָׂאִים מִקְצֵה־אֲרֶזְךָ בְּרָקִים לְמַטֵּר	16 לְקוֹל תִּתּוֹ הַמּוֹן מִיָּם בְּשָׁמַיִם וַיַּעֲלֶה נְשָׂאִים מִקְצֵה־אֲרֶזְךָ בְּרָקִים לְמַטֵּר עֲשֵׂה וַיֵּצֵא רוּחַ מֵאֲצֻלָּתָיו
14 נִבְעַר כָּל־אֶדְם מִדַּעַת הַבַּיִשׁ כָּל־צוֹרֶף מִפָּסֶל כִּי שָׁקַר נִסְכּוֹ וְלֹא־רוּחַ בָּם	17 נִבְעַר כָּל־אֶדְם מִדַּעַת הַבַּיִשׁ כָּל־צוֹרֶף מִפָּסֶל כִּי שָׁקַר נִסְכּוֹ וְלֹא־רוּחַ בָּם
15 הִבֵּל הֵמָּה מַעֲשֵׂה תַעֲתָעִים בַּעַת פְּקָדָתָם אֲבָדוּ	18 הִבֵּל הֵמָּה מַעֲשֵׂה תַעֲתָעִים בַּעַת פְּקָדָתָם אֲבָדוּ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병행구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문이다. 10:13의 וַיַּעֲלֶה(wayya‘aleh)와 51:16의 וַיַּעֲלֶה(wayya‘al)이 약간 다른 형태로 보이지만 문법적 자질이나 의미가 같기 때문에 두 구문은 결국 완전히 동일한 병행구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구문으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바르다.

이제 각 역본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두 구문을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구절만 제시하였다.)

렘 10:14-15 (『개역개정판』)	렘 51:17-18 (『개역개정판』)
14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 <sup>이</sup> 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sup>가</sup>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7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 <sup>색</sup> 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sup>부어</sup>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 <sup>되</sup> 이 만든 것인즉 징벌 <sup>하</sup> 실 때에 멸망할 것이	18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 거리 <sup>이니</sup> 징벌 <sup>하</sup> 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위 역본은 비교적 일관성을 살려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15//17-18 절에서 상당히 다르게 번역된 이유를 알기 어렵다. 특히 צוֹרֶף(tsoref)를 “은장



이”(10:14)와 “금장색”(51:17)으로 달리 번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문맥을 감안한 차이라 볼 여지도 없다. 앞으로 일관성 점검과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렘 10:14-15 (『새번역성경』)	렘 51:17-18 (『새번역성경』)
<p>14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u>지식이</u> <u>모자란다</u>. <u>은장이</u>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u>그들이</u> <u>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u> <u>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u></p> <p>15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u>조롱거리</u>에 지나지 않아서, <u>벌을 받을</u>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p>	<p>17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u>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u> <u>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u>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u>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u> <u>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u></p> <p>18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u>조롱거리</u>에 지나지 않아서, <u>벌 받을</u>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p>

이 역본은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14//17절을 제외하면, 즉 12-13//15-16, 15//18절은 완전히 동일한 구문으로 일관성있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51:17은 유난히 혼란스럽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부분은 이중번역에 해당하며 없어야 옳다. 14//17절을 보면 번역팀이 일관성 점검을 하다가 중단한 듯 보이는데 정리되지 않은 채 출판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즉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렘 10:14-15 (『쉬운성경』)	렘 51:17-18 (『쉬운성경』)
<p>14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u>아는 것이</u> <u>적습니다</u>. 모든 대장장이는 자기가 만든 <u>우상 때문에 부끄러움</u>을 당합니다. <u>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헛된 신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u></p> <p>15 그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u>사람들의 노리개</u>에 지나지 않습니다. <u>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망하고 말</u> 것일입니다.</p>	<p>17 사람은 <u>다 어리석고 무식하다</u>. <u>은장이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u>을 당한다. <u>그들이 만든 신상은 거짓 신일 뿐이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u></p> <p>18 그것들은 헛것이요, 모두가 <u>비웃음거리일 뿐이니 심판받을 때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u></p>

위 역본은 이 구문이 병행구문이란 점을 놓친 것 같다. 10:12-15 // 51:15-18 병행구문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구문이 병행구문이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렘 10:14-15 (『우리말성경』)	렘 51:17-18 (『우리말성경』)
<p>14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이들 모두가 그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는 <u>호흡이 없습니다.</u></p> <p>15 그것들은 쓸모가 없고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u>여호와께서 벌하실 때 그것들은 망할 것입니다.</u></p>	<p>17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이들 모두가 그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u>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u></p> <p>18 그것들은 헛것이고 <u>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u></p>

위 역본도 병행구문의 일관성 번역이란 점에서 부족하다. 10:15//51:18의 경우 동일한 원문에서 나온 번역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되어 있다.

렘 10:12-13 (『바른성경』)	렘 51:15-16 (『바른성경』)
<p>12 여호와께서 <u>그분의</u>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u>그분의</u>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u>그분의</u>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p> <p>13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u>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u></p>	<p>15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p> <p>16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u>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u></p>

이 역본은 두 병행구문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문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12//15절과 13//16절에서 일관성의 부족을 보이고 있다. 완성도가 약간 떨어진 아쉬움을 남긴다.

렘 10:14-15 (『천주교성경』)	렘 51:17-18 (『천주교성경』)
<p>14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은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p> <p>15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그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것들도 사라지리라.</p>	<p>17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은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p> <p>18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그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것들도 사라지리라.</p>

이 역본은 완벽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개신교 역본들에 비해 일관성 번역 면에서는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

221년이 지난 2005년에 적어도 번역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에 가장 근접한 역본을 갖게 된 것 같다.<sup>20)</sup>

이제 외국어 역본들을 보자.

렘 10:14-15 (영어 RSV)	렘 51:17-18 (영어 RSV)
<p><sup>14</sup> Every man is stupid and without knowledge; every goldsmith is put to shame by his idols; for his images are false, and there is no breath in them. <sup>15</sup> They are worthless, a work of delusion; at the time of their punishment they shall perish.</p>	<p><sup>17</sup> Every man is stupid and without knowledge; every goldsmith is put to shame by his idols; for his images are false, and there is no breath in them. <sup>18</sup> They are worthless, a work of delusion; at the time of their punishment they shall perish.</p>

위 영어 역본은 완전히 동일한 구문이며 완성도가 뛰어나다.

렘 10:12-13 (독어 LUT)	렘 51:15-16 (독어 LUT)
<p><sup>12</sup> Er <i>aber</i> hat die Erde durch seine Kraft gemacht und den Erdkreis <i>bereitet</i> durch seine Weisheit und den Himmel ausgebreitet durch seinen Verstand. <sup>13</sup> Wenn er donnert, so ist Wasser die Menge am Himmel; <i>Wolken läßt er</i> heraufziehen vom Ende der Erde. Er macht die Blitze, daß es regnet, und läßt den Wind kommen aus seinen Vorratskammern.</p>	<p><sup>15</sup> Er hat die Erde durch seine Kraft gemacht und den Erdkreis durch seine Weisheit <i>bereitet</i> und den Himmel ausgebreitet durch seinen Verstand. <sup>16</sup> Wenn er donnert, so ist Wasser die Menge am Himmel. <i>Er läßt die Wolken</i> heraufziehen vom Ende der Erde. Er macht die Blitze, daß es regnet, und läßt den Wind kommen aus seinen Vorratskammern.</p>

위 역본의 두 구문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2절에 *aber*가 첨가되어 있고, 두 군데서 어순의 차이를 보인다: 12//15절에서 *bereitet*, 그리고 13//16절에서 *Wolken läßt er // Er läßt die Wolken*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 밖에는 완전히 일관된 번역이다.

20) 이 역본의 일관성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역본이 전체적으로 뛰어난 번역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우수성은 다른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 글은 그러한 종합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렘 10:14-15 (중국어 CUV)	렘 51:17-18 (중국어 CUV)
<sup>14</sup> 各人都成了畜类, 毫无知识; 各银匠都因他雕刻的偶像羞愧。 他所铸的偶像本是虚假的, 其中并无气息, <sup>15</sup> 都是虚无的, 是迷惑人的工作; 到追讨的时候必被除灭。	<sup>17</sup> 各人都成了畜类, 毫无知识。 各银匠都因他的偶像羞愧; 他所铸的偶像本是虚假的, 其中并无气息, <sup>18</sup> 都是虚无的, 是迷惑人的工作, 到追讨的时候, 必被除灭。

위 중국어 역본은 완전히 동일한 구문이다. 단지 14-15//17-18절에서 부호 사용에 차이를 보이지만 완성도가 높은 역본이다. 이 중국어 화합본(CUV)에는 오늘날 안 쓰이는 고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오늘의 세대가 이해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관성 점검을 포함한 번역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한글 번역본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과 대만 등지의 중국인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보다 수준 높은 성경을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

렘 10:14-15 (터키어 Kutsal Kitap)	렘 51:17-18 (터키어 Kutsal Kitap)
<sup>14</sup> Hepsi budala, bilgisiz, Her kuyumcu yaptığı puttan utanacak. O putlar yapmacıktır, Soluk yoktur onlarda. <sup>15</sup> Yararsız, alay edilesi nesnelendir, Cezalandırılınca yok olacaklar.	<sup>17</sup> Hepsi budala, bilgisiz. Her kuyumcu yaptığı puttan utanacak. O putlar yapmacıktır, Soluk yoktur onlarda. <sup>18</sup> Yararsız, alay edilesi nesnelendir, Cezalandırılınca yok olacaklar.

위 터키어 성경은 완전히 일관된 번역이며 완성도가 높다.

이로 볼 때 현재 나와 있는 한글 역본들 가운데서 『천주교성경』 외 다른 역본들은 병행구문에 대한 번역의 일관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성경에는 위의 예보다 더 큰 단위의 병행구문들이 있다. 사건 단위, 장 단위, 책 단위의 병행구문들이 있다. 사건 단위 병행구문의 예로 복음서(특히 공관복음서)의 사건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일” 마태복음 14:13-21 // 마가복음 6:30-44 // 누가복음 9:10-17 // 요한복음 6:1-14. 장 단위 병행구문의 예를 들면,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 역대상 10장,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다윗” 사무엘하 22장 // 시편 18편. 구약에서 책 단위의 병행구문으로 “사무엘상-열왕기하” // “역대상-하”를 들 수 있다. 복음서의 병행구문들은 사건 단위, 장 단위, 책 단위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같은 대단위 병행구문들에 대한 각 역본들의 번역문 점검은

글의 분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성경의 대단위 병행구문들에 있어서도 한글 역본들은 각기 다소간 일관성의 결여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점검과 수정의 과제로 남아 있다.

#### 4. 나가는 말 및 제언

성경 원문은 근본적으로 주제의 통일성과 언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원문에 내재되어 있는 본문상호성이 번역에서 재현될 수 있다면 그 역문은 좀 더 깊고 체계적인 성경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번역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용어와 구문의 일관성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정확성, 현대 국어사용에 자연스런 문체 또는 문학적 완성도 등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관성 점검이다.

위에서 몇몇 한글 성경 역본들과 외국어 성경 역본들의 본문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일관성 점검을 해보았다. 시험적으로 적용한 몇몇 일관성 점검 항목에서 한글 역본들은 대부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국어 역본들과 비교해 볼 때 한글 성경들이 국제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물론 이같은 한글 성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성경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다.<sup>21)</sup>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역본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한글 역본들은 거의 모두 치밀한 일관성 점검을 거치는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성경 역본들에 대해 정밀한 일관성 점검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기계적인 일관성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각 역본들의 번역 원칙과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나이다의 말처럼 “일관성은 번역에 있어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sup>22)</sup>

실제 일관성 점검에는 여러 도구들이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몇몇 참고도서들이 사용되었다. 구약 히브리어 원문 대조 점검에는 Abba Bendavid, *Parallels in The Bible* (Carta, Jerusalem, 1972), 신약 복음서 대조 점검에는

21)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사용되는 6860개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457, 신약이 번역된 언어는 1211, 성경 일부가 번역된 언어는 897. 성경이 전혀 없고 번역이 시작되지도 않은 언어가 2078개이며 전체 인구는 3억 4천만 명이다.

<http://www.wycliffe.net/ScriptureAccessStatistics/tabid/73/language/en-US/Default.aspx>.

22) Eugene A. Nid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181.

Kurt Aland,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Hendrickson Publishers, 2006) 등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가 개발한 “파라텍스트(Paratext)” 같은 성경 번역 전문 프로그램들이 사용된다.

천만 한국 성도들이 먹을 양식, 오천만 한국인이 읽어야 할 성경, 나아가 팔천만 한민족 전체가 읽을 성경으로서 부족하지 않을 양질의 한글 성경이 기다려진다. 번역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지닌 고품질의 한글 성경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나아가 그같은 양질의 성경에 근거한 진리운동이 한민족 위에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요어>(Keywords)

성경번역에서의 일관성, 일관성 점검, 본문상호성, 인용문 점검, 병행구문 점검.

consistency in Bible translation, consistency checks, intertextuality, checking quotations, checking parallel passages.

(투고 일자: 2011. 2. 17; 심사 일자: 2011. 2.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3. 29)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바른성경』, 서울: 한국성경공회, 2008.
- 『새번역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쉬운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4.
- 『우리말성경』, 서울: 두란노서원, 2005.
- 『현대어 성경』, 서울: 성서원, 1991.
- 『현대인의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 BHS Elliger, K. E., et al.,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0.
- CUV 圣经 和合本 (Chinese Union Version), Hong Kong: Hong Kong Bible Society, 1919.
- GNT Aland, Kurt,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rev. ed.,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93.
- Kutsal Kitap* (Turkish Bible), Istanbul: Turkish Bible Society, 2002.
- LUT *Luther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4.
- LXX Rahlfs, A.,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1979.
- NET *New English Translation*, Richardson: Biblical Studies Press, 2005.
- NLT *New Living Translation*, Wheaton: Tyndale House Foundation, 2007.
-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52.
- Aland, K.,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6.
- Beekman, J., “Classifying Translation Problems”, *Notes on Translation* 30 (September 1968), 14-20, *Translator’s Workplace* 5, Dallas: SIL International, 2008.
- Bendavid, 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 Brodie, T. L., MacDonald, D. R. and Porter, E. S., (eds.), *The Intertextuality of the Epistles: Explorations of Theory and Practice*,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 Dillard, R. B., “Translators, Translations, and the Church”, *Notes on Translation* 60 (June 1976), 12-19, *Translator’s Workplace* 5, Dallas: SIL International, 2008.

<http://www.wycliffe.net/ScriptureAccessStatistics/tabid/73/language/en-US/Default.aspx>.

Lawrence, P. J. N., “*Běřôš*—A Study in Translational Inconsistency”, *The Bible Translator* 55:1 (January 2004), 102-107.

Nida, E. 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The Bible Translator* 5:4 (October 1954), 176-181.

Towner, P., “Intertextuality: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0 (2007), 104-120.



<Abstract>

## **Consistency Checks in Bible Translation and Korean Bible Versions**

Dr. Sooman Noah Lee  
(GBT/SIL Internationa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consistency checks needed in the process of Bible translation, to assess the quality of some published Korean Bible versions by examining them with selected consistency items, and to suggest the need of revising the versions by applying thorough consistency checks so that Korean churches can have Bibles of better quality.

The process of consistency checks in Bible translation is a part of reproducing the nature of the original biblical text into the translated text. The original biblical text is characterized by its intertextuality comprising a linguistic cohesion and a thematic coherence. That linguistic cohesion is realized by the many terms and phrases as cohesion features that are us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whole Bible. It is as if the Bible is woven into a masterful piece of fabric with intertextual strings of cohesion across the Hebrew OT and the Greek NT. Some linguistic and literary features of the original text, such as the acrostic nature of some psalms, are virtually impossible to translate into another language. Some other features, however, are possible to reproduce in translation. Among the reproducible features is the domain of consistency items although checking them takes highly technical efforts over a considerable length of time.

Korean churches have strived to have a good Bible translation in Korean, and that effort produced several versions in recent years. But as yet, none of these versions has reached the stature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61) as the “Church Bible”. This means there is a need to supply a version of high quality to Korean Christians. One channel to upgrade the quality of translation is to apply thorough and technical consistency checks.

Here, general consistency items are introduced first, then some selected consistency items are experimentally applied to six recently published Korean versions: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6), *the Agape Easy Bible* (2004), *the Duranno Korean*

*Bible* (2005), *the Korean Truthful Version* (2008), and *the CBCK Bibl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2005). In addition, four foreign language versions are examined with the same items: *The English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the German Lutherbibel* (1984), *the Chinese Union Version* (1919), and *the Turkish Kutsal Kitap* (2002).

The result of this examination shows that the Korean Bible versions are found largely lacking thorough consistency checks. In comparison, the four foreign language versions are more carefully done in this respect. It is not to say that the Korean versions are of poor quality but that they lack a professional finishing touch. Thus, thorough consistency checks remain the desiderata for most Korean Bible versions.